

성경책은 무엇인가?

"성경책", "성경구절"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를 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책은 아시아에서 건너온 약 40명의 작가들에 의해 66권의 책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작가들은 왕, 세리, 어부, 의사, 농부, 종 등 모두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500년 전에 성경책을 썼고, 그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고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개개인의 다른 책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모든 책들이 합쳐졌을 때 그 책들은 모두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기에 그 모든 책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던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책은 오래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성경책은 최초로 인쇄기로 쓰여지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성경책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총 39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책들은 총 927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래 원본은 히브리어로 아래와 같이 쓰여졌었습니다.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구약성경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신성한 성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260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책들의 저자들은 모두 아래와 같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성경책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인류의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근원, 죄의 근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모두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 책은 성경책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처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책에서 반복하고 있는 예언된 미래들 그리고 벌써 실현된 많은 예언들이 성경책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세상에 존재할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꼭 죽어야만 할까?
우리가 죽고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걸까?
우리가 죽고나면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살 수 있게 될까?
사탄은 죽은사람의 영혼과 다른걸까?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걸까?
죄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사람은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겪다가 결국엔 죽는걸까?

이 많은 질문도 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질문도 많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장들

1. 태초	1
2. 아브라함	21
3. 모세	36
4. 출애굽	65
5. 선지자	95
6.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141
7. 신약: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험	157
8. 예수님의 처음 사역	177
9. 기적과 비유들	208
10.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고난	241
11. 부활, 오순절 및 초대교회	271
12. 세상끝까지	299

선과 악®

저작권© 2006 마이클과 대비 펄
No Greater Joy Ministries, Inc. 발행
1000 Pearl Road
Pleasantville, TN 37033
www.NoGreaterJoy.org

모든 권리는 저작권이 행사되어 있으며, 이 출판물의 단 한 부분도 어느 형식이나 어느 방법으로 복사하거나 복구시설에 저장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작권 법에서 허용하는 것들이나 출판사의 사전 허가없이 즉, 전자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사진복사, 기록하는 행위들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첫 인쇄,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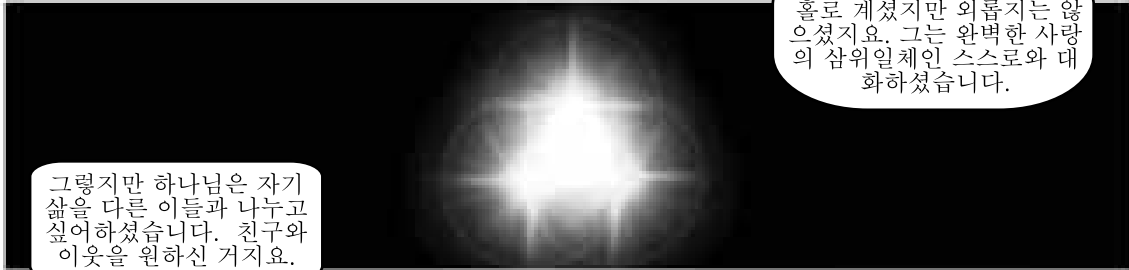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아주, 아주 오래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할 이야기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사실이지요. 어떤 것은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란 때로 지어낸 이야기보다 더 이상합니다.



처음에... 아니, 처음도 되기 전,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와 해와 별이 만들어지기 전, 심지어 빛과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작도 없으신 그분은 홀로 계셨지만 외롭지는 않았으셨지요. 그는 완벽한 사랑의 삼위일체인 스스로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삶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원하신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기 왕좌를 둘러싸고 자기를 찬양할 수많은 종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루시퍼가 그들 중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를 내쫓으셨고, 그의 이름은 사탄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었으며, 하나님은 물 위에 다니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흑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많은 현대인의 생각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는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있으라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4시간짜리 하루를 여섯 번 지낸 열세만에 하나님은 지구위에 살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 땅의 흙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그 분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닮은 산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창조물을 남자라 하고, 그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모든 동물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동물이 아담은 자기에게는 동물처럼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담을 도울 짝을 지으리라.

그들은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곳은 최악도 배고픔도 없고, 너무 추워지거나 더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깨워 그 여자를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이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곳은 최악도 배고픔도 없고, 너무 추워지거나 더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어린아이들마냥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악한 자, 사탄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망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하와와 대화하기 위해 생물의 몸에 들어가 그 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나무만 빼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꼭! 안 죽어.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단다. 그리고 우리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보기도 참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뒤늦게야 하와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악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 안 죽었잖아요. 먹어 봐요, 당신도 지혜롭게 될테니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으하하, 이제 너희는 그에게 죽었다!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나 보라구!

아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그가 곧 온 것인데. 벌거벗은 걸 가려야 해.



아담아, 어디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내 말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다면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쉬-익

뱀이 저를 속였어요.
제가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
았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
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꿈치를 상하게 하겠고 여
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전쟁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
을 멸망시킬 날이 오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은 인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없애실 수 있었지만 인류
를 시험할 도구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
다. 인류는 하나님을 따를까요, 아니면
사탄을 따라 반역을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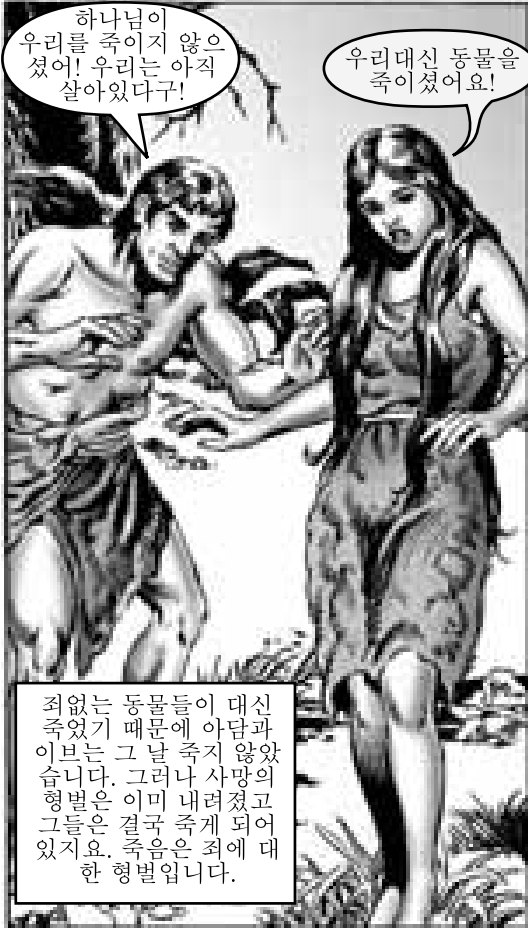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내가 이 땅을 저주하여 채소보다 가시와 엉겅퀴가 더 자라게 하겠고, 너는 애써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슬픔이 있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는 대신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어!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대신 동물을 죽이셨어요!

죄없는 동물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형벌은 그들이 내려졌고 그들은 결국 죽게 되어 있지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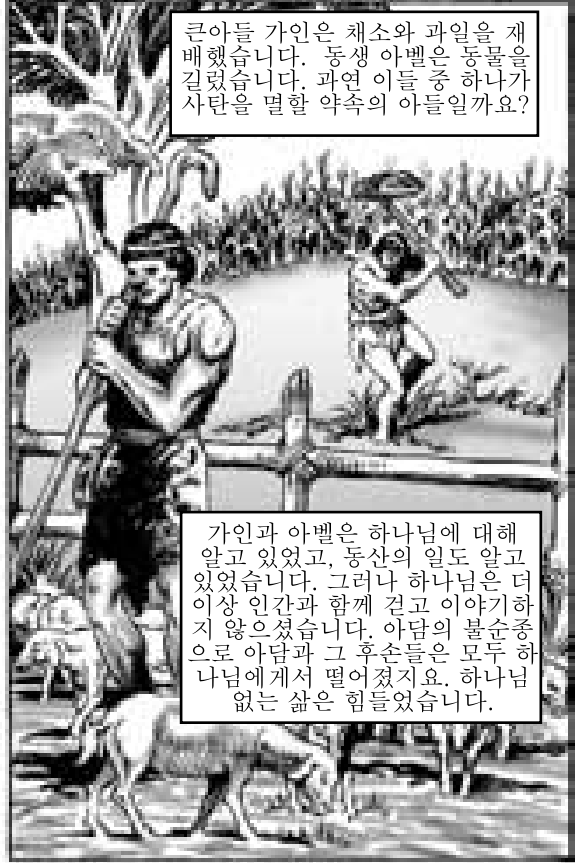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입구에 그룹이라 불리는 특별한 천사를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은 결국 소멸되었고 생명나무는 땅에서부터 옮겨갔지요. 언젠가 생명나무가 이 땅에 돌아오겠지만, 이런 내가 이 이야기를 너무 앞서가는군...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과 딸들이 서로 결혼하여 또 자녀들을 낳았지요.



큰아들 가인은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동물을 길렀습니다. 과연 이들 중 하나가 사탄을 멸할 약속의 아들일까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동산의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죽이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저를 대신해 이 어린양을 죽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인도 그가 가진 중 최상의 것을 드렸지만, 그것은 피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최상의 것으로 드리니 저의 제물을 받아주세요.

이들 중 하나가 약속된 구속자일까요?



아니야, 가인아.

하나님은 피흘림 없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죄없는 어린양의 피흘림을 보시고서 아벨의 죄를 덮으셨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땅히 할 바를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또 네가 동생 아벨을 다스리고 그는 너에게 복종하여 살 것이야.”



네가 뭐가 그리 대단하지? 내 과일과 채소가 그 피범벅인 어린양보다 가치가 더 있는데. 뭣 때문에 네가 그리 특별하냐구?

형님, 아직 드십시오.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었는데, 내가 가지고야 말겠어!

퍽!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자기가 살인한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기라도 해야 하나요?

네 동생의 땅에 피가 있다. 그 핏소리가 너의 악한 행위를 내게 알려주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을 항상 보고 계시지요. 그에게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인이 아벨에게 한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지요. 그 자신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근친상간을 통해 신체적 결합을 가져오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아직 생기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자 하나님은 근친간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또 낳고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들을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셋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역시 아들을 낳았으며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죄의 저주를 없애고 사망을 멸망시킬 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 땅에는 많은 도시와 마을과 농장이 생겨 번성하게 되었지요.

새 세대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죄악이 성행했습니다. 남쪽의 생각은 지요. 어는 누구도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의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멸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겠지요.

이제 아홉 세대(1400년)가 지났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가족이 도대체 하나님께 있을까요?

B.C. 2500년경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이 하나 있었습니. 하나님
은 들은 이 죽일지라도 이 사람에
게는 자비를 베풀어 그와 그
의 가족은 죽이지 않으리라
마음먹으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온 땅
위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
다. 죽을 것이야. 너와 네가
족과 죽을 동물을 살리기 위해
큰 배를 만들어라.



은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동물 한 쌍씩을 데리고 동
태워라. 먹거리도 한 쌍씩
물은 배를 해라. 내가
수에 대비해 내가
야할지 내가
일러주마.

노아가 바로 약속의 아들,
사탄의 일을 파괴할 그 아들일까
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아니면 그 역시 거역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생
물 두 마리씩과 그들이 먹을 식량을
다 실기 위해 배가 얼마나 커야 하
는지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닥칠 홍수에 모두가 멸망하리라는 생각에 노아는 슬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큰 홍수로 멸하실 겁니다. 저를 믿고 이 배에 함께 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듣겠는가? 자녀를 죽이시겠는가?

죄 때문이지요. 죄를 그만 짓고 사랑과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120년 후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동물을 모아 노아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 마치 누가 부르는 것처럼 스스로 오잖아.

어떤 놈들은 정말 결. 지. 혼. 난. 도. 몰.랐.아. 이. 홍. 수. 를. 보.낸.다.는. 노.아.의. 말.에. 뭔.가.가. 있.을.까?

말도 안 돼. 다 온 세상을 멸할 때 어디서 나오냐구?



자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네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배에 오라. 죄에서 떠나기를 거부한 자들 모두가 곧 너부숯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배 문을 닫으셨고,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저 바보들 좀 보게나. 물에서 멀리 떨어진데 다른 땅 한가운데 데리고 배에 간혀 있구먼.

그러게, 아마 사자가 그들을 벌써 잡아 먹었을지도 모르지.

벌써 일주일이나 저 안에 있었다구!



그런데 일곱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땅 속 깊이 있던 물까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저 배에 탄 미치광이들이 하나님을 죽이실 거라고 한 말이 사실일까?

웃기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야.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믿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다 틀릴 수가 있겠어?

이전엔,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항상 좋았고 아지랑이가 땅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아무도 비라는 것에 대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쳤다고 여겼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노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오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B.C. 2348년경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사실이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온 땅의 산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와 함께 배에 들어간 이들을 제외하고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요. 이제 일 년 이상이 지나야 그들이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물이 빠져 배에서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고, 비둘기는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선가 나무가 이미 자라고 있다는 말이었지요. 나중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내자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았다는 증거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아라랏 산에 걸려 머물렀고, 모두가 새 세상, 곧 죄없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마음속에 죄가 있었으니까요. 이 피의 제사는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을 대신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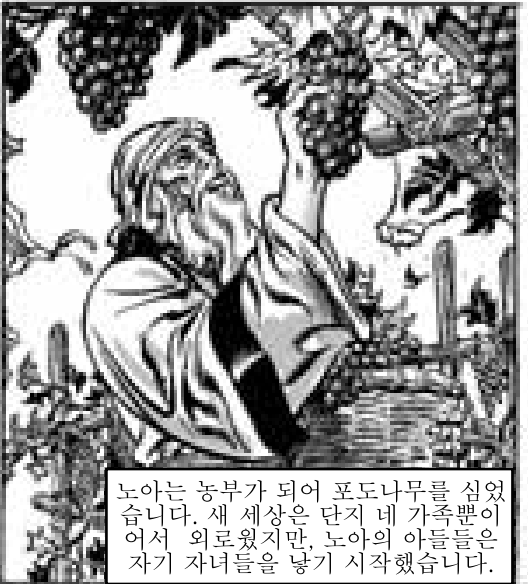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으로 삼겠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온 땅에 흩어져 땅을 채워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겠다. 너희는 채소와 풀을 먹는 것처럼 땅 위에는 살아 숨겨져도 좋다. 단지는 그 피를 먹어서는 안된다. 아무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죄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이 그를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죄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의 피를 흘려야 한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 동물들은 홍수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남은 8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려고 동물을 죽이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새 세상은 단지 네 가족뿐이어서 외로웠지만, 노아의 아들들은 자기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과일을 통에 넣고 몇 주 놔두면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술이라는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술을 너무 좋아하게 된 나머지, 어떤 때에는 일을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쓰러져 정신을 못차리곤 했으니까요. 술은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술에 잔뜩 취하여 별거벗은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가 본 것을 조롱하듯 말했지요.



노아가 깨어나자, 아들 함의 말이 이렇습니다. '네 아들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너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네 동생 셈의 후손들의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고 결국 유대인들의 종이가 되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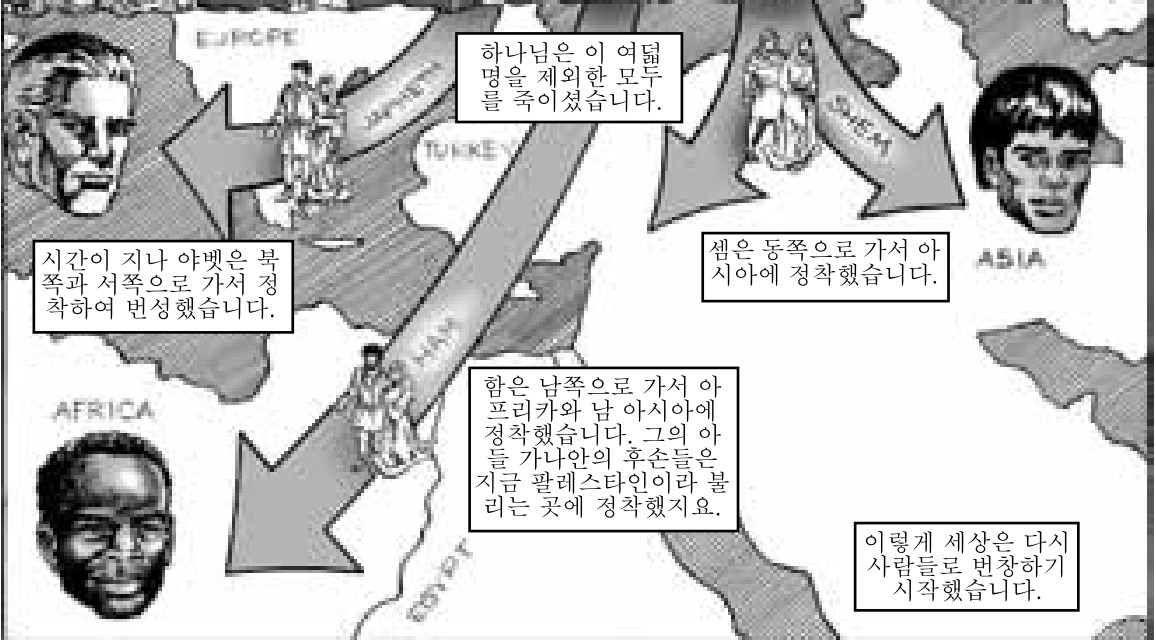


아담과 하와 셋

가인

아벨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덟 명을 제외한 모두를 죽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야벳은 북쪽과 서쪽으로 가서 정착하여 번성했습니다.

셈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함은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곳에 정착했지요.

이렇게 세상은 다시 사람들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B.C. 2247년경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다. 니므롯은 성장하여 용맹스런 사냥꾼이 되어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쳤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종교를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에 흩어져 땅을 채우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장소로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한 분은 그들의 창조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나뭇과 돌과 금속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나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Can you understand me?

เราทำอะไรลงไปนี่ะ

탑을 쌓던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각 언어를 쓰는 무리들이 제각기 갈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무리는 먼 곳으로 갔고, 어떤 무리는 배를 타고 먼 섬으로 갔습니다. 어떤 무리는 추운 북쪽으로, 어떤 무리는 더운 사막 지방으로 흩어졌지요. 이렇게 해서 온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행되었습니다.

땅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는 다시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